

◎ 교회목표 ◎

- 1. 천국사신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0년도 표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딤후1:1)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 2.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 천년이 되도록 한다.

발행인:이종윤 발행처: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 핸드 벨(Hand Bell)팀 창단

- 20~30대 젊은이들 중심으로 -

새 예배당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교회는 경건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핸드벨(Hand Bell)팀을 창단하기로 하고 악기를 주문했다. 핸드벨 팀은 II부예배 입례송과 한글시 연주를 하게 된다. 핸드벨 팀에 가입하려면 악보를 읽을 수 있고, 팔에 힘이 있고 운동신경이 발달한 사람으로

믿음과 열심이 있는 20~30대 젊은 남, 녀중 오디션(Audition)을 거쳐 선발된다. 지방자는 11월 25일(토) 오후 3시 3층에서 있을 예정인 오디션에 참여해야 한다. 문의는 교회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11월 20일경에 입학할 핸드벨 한 세트는 이영희 집사(오정수장모)가정에서 헌납했다.

### 피택집사, 권사들 당회장 면담

피택 안수집사, 권사 과제를 제출 및 면접일 박두

2000년도 서울교회 안수집사와 권사로 피택된 일꾼들은 그동안 당회아래에서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왔다. 이제 11월 11일까지 과제물 제출일이 다가오고 있다. 안수집사는 신·구약 통신교재와 설교요약 1편 “나는 안수집사로 이렇게 충성하련다”는 간증문 1통을 제출해야하고 권사는 신약통신교재와 “내가 권사가 되면 이렇게 충성하련다”는 제목의 간증문 1통을 제출해야한다. 11일 당회장 목사님과의 시간을 마지막으로 교육은 마치게 되고 이어 11월 20일에 그동안 배웠던 과목들에 대한 당회고시와 또한 면접이 있게된다. 모쪼록 피택집사로, 권사로 부름을 받았던 귀한 중들이 이모든 과정을 은혜가운데 마치고 11월 마지막 주일 우리교회 창립 기념일에 안수식과 취임식을 통해 주님의 몸 된 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 딴수군을 부른다

-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지킨다 -

새 예배당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더욱 요청되고 있다. 건축위원회(위원장 오정수 장모)에서는 현장을 담장을 열고 정치 작업에 들어가기 위해 예배당을 지켜 줄 딴수군을 찾고 있다. 저녁 7시부터 새벽 5시까지 현장에 와서 기도하실 분, 성경 읽으실 분 또는 모임을 가질 분을 찾고 있다. 연령과 성별에 구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일에 몸으로 헌신하실 분들이 많이 자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자원하실 개인이나 단체는 교회 사무국이나 현장 사무실(558-1106)로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 한편, 지난 수요일 I부 예배후 다락방 공

부를 마치고 제자훈련(LTC)과정은 현장실습 시간으로 대처하고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 장소에 힘을 모았다. 11월 2일(목) 밤 6시부터 11시까지는 남자성도들이 현장 정리에 기쁨과 감격스러운 봉사의 손길을 폈다. 이번 봉사로 공사에 큰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며 함께 일하는 이들에게도 큰 격려가 되었다.

내일(11월 6일 월) 밤 6시에 다시 남자성도들의 봉사의 손길을 기다린다. 6시부터 7시까지 현장에서 바베큐 파티가 있은 후 7시부터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수요일(8일) I부 예배후에는 여자성도들의 봉사 활동이 계속 될 것이다. 작업복과 신발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희생하는 일꾼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 제27회 서울강남노회 개회

오는 7일 오전 9시에 서울 소망교회당에서 27회 서울강남노회가 열린다. 이종윤 목사를 비롯한 부목사 전원과 박철훈, 오정수, 왕경래, 하영수, 노송성, 박두호 장모가 우리 교회 총대로 참여한다.

### ◎ 11월 행사 일정

- 11. 5 • 찬양위원회 헌신예배
- 11. 8 • 서리집사 당회추천
- 11. 10 • 성경암송대회 본선 및 결선  
• 피택자 당회장 면담
- 11. 17~18 • 서리집사 1, 2차 교육
- 11. 18 • 진중 세례식
- 11. 19 • 추수감사 찬양예배
- 11. 20 • 피택자 당회고시 및 면접
- 11. 24~25 • 서리집사 1, 2차 면접
- 11. 26 • 교회설립 9주년 기념일  
• 추수감사(성찬식)  
• 집사, 권사 임직식  
• 사명자대회 승전감사의날

**새 예배당**

## 입당 D-50

\*\*\*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떠날 수 없었던 하나님은  
우리교회가 새 예배당 건축을  
마칠 때까지도  
그리하실 것이다.

### 주간 사명자 대회 일정

행사	일시	주관	
기도 릴레이	매일(24시간)	전성도	
다니엘 기도	매일 오전 10시 · 오후 10시	전성도	
다락방 믿음양 찾기	10월 8일~11월 25일	각 다락방별	
태신자 초경의 날	11월 19일(주일) I, II, III부 예배시		
전도	노방전도	11월 5일(주일) I, II, III부 예배후	베드로, 뱀뱀, 바울, 마리아, 아브라함
	거주지 및 친지전도	10월 8일~11월 25일	각 가정, 성도 전원

# 거듭난 자의 언어

성경 : 아고브서 3장 1절 ~ 12절



이중운 목사

\*\*\*

주님 안에서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옛사람이 점점 변해서 조금씩 단계를 높여 가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옛사람의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그는 새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1. 언어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인간에게 언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인간은 하나님과 같게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구원을 말로 하였고 심판도 말로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하도록 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 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존하십니다. 또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경륜을 따라 이끄십니다. 인간도 말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힘은 인간은 구원으로 이끈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도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 2. 언어는 인간을 동물과 구별시킨다

동물 중에 언어를 가진 존재는 없습니다. 때때로 자기들만이 이는 신호로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지만 인간과 같은 언어를 가진 동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문화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

은 그들에게 말을 주시어서 각각의 동물에게 이름부터 짓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로서 만물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의 첫 번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듣는 것으로부터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것도 결국은 말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동물과 다른 인간 삶은 언어윤리 속에서 찾아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언어가 있으나 순종도 다스림도 없다면 그 말은 소리에 불과합니다. 말이 말이 되어질 때 순종도 있고 다스림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언어가 주어졌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고 동물과 구별됩니다.

### 3. 언어는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

로마서에 바울이 인간의 죄를 기술하는 중에 말로 짓는 죄를 나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롬 3:13-14). 모두가 다 말로 범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 다시 말해서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을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죄가 대부분 말에서부터 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골레 씌우리라"(2절).

이사야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다"(사 6:5).

시편 12편에서 다윗의 고백은 더욱 심각합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 거짓을 말함이어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시 12:2-3). 다윗은 거짓말하는 입,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 자기 입술을 제 것이라고 하며 스스로 주관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습 3:9). 스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하는 가운데 입으로 나온 말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합니다. 언어는 내면 세계를 표출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마음과 회개한 마음을 가진 거듭난 자의 말을 해야 합니다. 깨끗한 마음은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성결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만을 향한 일편단심을 가진 마음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팔린 몸이 되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노예의 몸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깨끗한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깨끗한 말만 하였고 깨끗한 말만 하므로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혀 주시고 그에게 큰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갖지 못했다면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이라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 할 때요,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한 말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침묵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과묵한 사람을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침묵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을 해야 할 때 과감하게 말하라고 합니다. 침묵은 야생마를 길들여서 일을 시키기 전에 죽여버리는 것과 같고 보물을 땅에 묻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선행이 될 수 없고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영국 속담에 "성령 받지 말고 목사가 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임명을 받고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을 거스린다면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한 사람, 거듭난 사람, 진실 되고 거짓 없는 말을 하는 사람, 덕을 세우는 말, 복음에 유익을 주는 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는 아름다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다락방장의 중요성

이상호 집사(7교구)

다락방 교회는 주님의 사랑  
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로 느낄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기쁘고 즐  
거운 은혜 충만한 아름다운 작

은교회이다. 성경말씀에 최초의 다락방은 성령  
이 불같이 임하셨던 마가의 다락방이었다. 그  
곳은 예루살렘 서쪽, 조용한 곳에 있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소박하고 검소한 집이었다. 예  
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마리아는 검  
소한 자기의 집이 예배의 처소가 되도록 바랐으  
므로 항상 정갈하고 깨끗하게 준비하였을 것이  
다.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12제자에게  
최후의 만찬을 베푸신 것도 마가의 다락방인  
마리아의 집이었다.

10년 전 우리서울교회도 문정동(이옥너 권  
사님택) 다락방에서 기도로 출발하였다. 새 예  
배당 입당을 이제 50여일 앞두고 있는 지금 매

년 실시하고 있는 행사지만 올해도 교회 창립  
50일 전에 사명자 대회가 실시중에 있는데 가  
장 실제적으로 일을 수행해야 할 부서는 다락방  
교회이며 다락방장의 헌신적인 노력과 모든 다  
락방 식구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로 그 결실  
은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을수 있다고 확  
신한다. 이러한 다락방과 다락방장의 중요한 위  
치와 역할은 백번 천번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  
다. 언뜻 생각나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전투 현  
장에서 전투의 승패는 6명의 전투 분대에 달려  
있다. 6명의 분대는 최전선에 나가 있고 그 분  
대원 선두에는 분대장이 있다. 그 분대장의 지  
휘와 역할에 따라 승패가 갈리듯이 다락방장의

역할과 사명감 또한 이와 같을  
것이라 생각해 보면 그 직분  
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가를  
알수 있다.

이번 사명자 대회에는 10년 동안 쌓아온 눈  
물과 기도로 결집된 총동원 전도잔치이며, 그  
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있던 형제  
자매를 초청하고 또 새로이 교회에 나오기로 결  
심한 형제 자매들은 온 교회가 뜨겁게 환영하는  
가장 뜻깊은 사명자 대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  
모든 성도는 전도의 사명자이다. 모든 다락방에  
서 또 교회학교에서 각 전도회에서 가정에서  
한명이라도 더 이번 기회에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특별히 다락방교회의 땀 흘  
리는 수고와 눈물어린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교  
회의 부흥이 배가 되는 놀라운 결실로 이어질  
수있기를 기대해 본다.



# 베들레헴 찬양대의 정교한 노래

신용식 집사(10교구)

이제 대치동 새로운 예배당에 입당할 날도  
머칠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좁은 공간에서 각  
부서가 겹치는 스케줄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으  
나, 넓고 큰 아름다운 성전으로 이사해서는 안  
정되고 질서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성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많은 인원이 베들레헴 찬양대원으로 보  
충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베들  
레헴 찬양대는 많은 성장을 해오고 있지만, 항상  
순속적인 부족함과 연습시간이 부족해서 만족할  
만한 찬양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베들레헴 찬양대는 장로님들을 비롯한  
교회 중직을 맡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데 교회의 각종 행사 준비를 위한 모임 때문에  
찬양 연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새 예배당 시대에는 좀더 다양한 남성 성도  
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학부, 청년  
부 청년들이 장년들과 함께 어우러져 찬양을 한  
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영광을 받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교회 생활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중에 하나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찬양도 예배의 일부  
분에 해당하므로 어떠한 다른 행사보다 어떠한  
다른 모임보다 찬양 연습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야 될 것으로 생  
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준비된 찬양과 예배를 원하십  
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면전의 신앙, 예배  
우선의 신앙생활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

다. 하나님은 성실한 봉사를 원하십니다. 참여해  
도 되고 안해도 되는 그런 모습의 봉사가 아니라  
베들레헴 찬양대원으로 임명받은 우리 대원들  
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대원의 위치를 성실  
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예배당에서는 찬양의 소리가 정  
교하고 우렁차게 피겨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데, 준비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베들레헴 찬  
양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예배당 시대에는 보다 더 많은 베들레헴  
찬양대원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망설이셨던 분  
들과 그리고 주변에 추천 할만한 분들은 권면  
하셔서 찬양예배 베들레헴 찬양대원들이 차고  
넘칠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줄줄로  
압니다.

특히 대학부, 청년부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  
기를 바라고 그 동안 베들레헴 찬양대원이 되기  
를 망설이셨던 분들과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참  
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아직도 '주의 일'에 열심내는 복을 주셨다

권순단 권사(9교구)

연초록 진초록 잎새들이 울긋불긋한 옷으로  
갈아입는 가을의 한 가운데 있으면서 에스더 여  
전도회 회원들의 기쁨 깊은곳까지 붉은색으로 갈  
아입게 합니다. 많은 사명애 큰 어깨에 메고 있고  
중대한 소명이 주어졌지만 언제나 시작이 반이  
아니라 작심삼일이고 두려움과 설레임 뿐입니  
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했다는 실적  
위주의 자랑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속에 하나님  
을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있고 믿음과 의지와 의  
욕이 식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뜻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고  
그래서 그 힘을 의지하여 무슨일을 해 낼수 있는  
용기도 생기게 됩니다.

금년 한 해 에스더 여전도회는 부끄러움과 아  
쉬움의 연속이었고 받은 사명만큼 충성하지 못한

것에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에스  
더 여전도회가 움직이고 있고 역사를 쉬지 않고  
있음은 미래가 어둡지 않고 큰 꿈이 있음을 말해  
주는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있다는 감각이 이럴때에 나타  
게 되고 살 소망이 이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생의 중년기를 넘기는 55세의 언덕에서 있는  
에스더 여전도회가 중심을 잃지 않고 있을 때 하  
나님의 교회는 더욱 든든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사명앞에 엄숙해지고 경  
건의 옷을 여미게 됩니다. 남선교회도 역사를 창  
조하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역사의 내면은 여성  
의 역할에 달려있습니다.

그 한 부분을 에스더 여전도회에 맡기심을 믿  
기에 오늘도 모든 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  
와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거룩한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나는 석양과 함께 아무 의미도 없을  
나이 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에 놀라운 일  
을 잘 해내는 에스더 여전도회가 될 수 있게 됐으  
니 두고두고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  
한 새로운 열심을 시작할 각오입니다.

# 11월 19일 주일은 태신자 초청의 辯

이규정 목사(2교구)

이번 11월 19일(주일) 1,2,3부 예배를 통해 진행될 태신자 총동원 주일의 핵심은 지난 1년 동안 영혼구원을 위해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사랑의 편지를 통해 양육해 오던 가족, 친지, 이웃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의 진수를 맛보게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눈물을 뿌리며 매주일 저녁과 매일 새벽 이들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주님이 정하신 이 결단의 날에 이들을 꼭 초청하여 우리만 듣고 은혜 받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말씀, 모든 마음이 녹아지고, 사탄의 권세를 강력하게 파하는 권세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당 회장 이종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들이 꼭 구원의 대열에 들어서도록 합시다.

그러면 태신자 초청전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전도는 반복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한번 전도를 받고 나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개는 여러 차례의 전도를 받아야 겨우 교회에 얼굴을 내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전도를 하고

그 사람이 거부하였을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된 권유와 전도를 하여야 합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는 전도됩니다.

둘째, 인간관계는 마음의 문을 쉽게 열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은 친분을 통해서 열립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면 이미 전도는 된 것입니다. 인도하고자 하는 태신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계속 기도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웃과 직장 동료 친구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사람도 구원의 역사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구원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셋째, 인도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선 내가 인도 할 수 있는 태신자들의

명단을 만들어서 그들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있는 가까운 사람을 중심으로 전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 1)가족, 친구, 친지, 동료, 이웃
- 2)교회에 한번쯤 나왔던 경험이 있는 사람
- 3)환경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사람(졸업, 출산, 이혼, 별거, 죽음 등)

## ■ 태신자 명단

김유미, 이은정, 박진오, 김효성, 이윤수, 정정환, 소지은, 이성민, 김경옥, 장영자, 장각규, 권오원, 이은홍, 백보현, 김명숙, 이호직, 이응준, 홍성준, 이정순, 한규현, 권강훈, 이성민, 한민상, 손성현, 정원혁, 최배상, 전소연, 김세현, 변재우, 김순옥, 김병태, 이송훈, 문미라, 이태원, 김인순, 음혜경, 최명희

## ■ 동정 ■

- 이인수 집사, 나기태 집사(11~12다락방) 「신성하우정, 믿음장식」 031-263-0553
- 옥정호 성도, 손지희 성도 득남
- 왕재용 성도, 김진희 성도 득녀 (왕경래 장로, 김정희 권사의 자)
- 최희선 성도 득남(서필영 집사의 자)
- 고집니다. 459호 순례자 4면에 최현인을 최양인으로 정정합니다.

## ■ 이사한 교우들 ■

- 정수환 · 이정남 성도(2교구) 강남구 대치4동 923-9
- 황정옥 집사, 주경자 집사(2교구) 경기도 광주(031-763-3255)

##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홍동기 성도, 조정옥 집사 가정

## ☑ 건축현장 방문팀

: 새가족부 - 6일(월) 새벽기도회 후 새 예배당 건축현장 방문

# 「LTC 훈련」을 이제는 현장에서...

고경선 목사(9교구)

3월부터 시작하여 총 20주 과정으로 은혜롭게 진행중인 지도사양성반(LTC)훈련이 이제 3주만 남겨놓게 되었다. 새예배당의 일신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서울교회의 교구일꾼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새로운 영적약식으로 은혜와 즐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새 예배당 시대를 준비하는 부지런함이었다. 그렇다면 입당을 목전에 둔 우리가 새로운 헌신의 모습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하여 지난주부터 수요일 LTC 공부는 교실이 아닌, 현장에서 우리의 몸과 맘으로 대신 하게 되었다. 머리만 키우는 공부라 아니라, 사랑과 믿음과 헌신을 키울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공부인 것이다.

깔끔한 양장대신, 몸빼마지에 수건과 마스크 그리고 장갑을 착용한 우리의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밀레의 그림 '만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름다움이었다. 그들은 성막을 짓는 구별된 이스라엘이었고, 교회를 세우는 현대의 사도들이었다. 온몸으로 현장에서 배우는 저들의 순례길은 서울교회 부흥을 예비하는 자들의 복된 발걸음이다. 여기에 교구일꾼들과 모든 성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수요일 오전반은 오후 1:30-3:30까지, 수요일 후반은 저녁 8:30-9:30까지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새 교회는 넓고 할 일은 많다."

## 서울주간기도

###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2. 2000 사명자대회 위하여
3.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4. 가정과 민족사회가 평안하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일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 † 교외약도

